

인문계열 [문제 2] 해설 및 모범답안

[문제 2] (가)에 제시된 ㉠의 한계를 설명하고, (나)의 ㉡과 ㉢의 행위에 대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논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오늘날 대다수 국가의 국민은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 경제 체제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나 국가의 간섭 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가진다. 스스로 선택한 분야에서 일하고, 돈을 벌고, 물건을 소비하며 살아간다.

자본주의는 근대 초기 상업의 발전과 함께 싹트기 시작하였다. 지리상의 발견과 국가 간의 교역 확대에 따라 자급자족적인 봉건 경제가 허물어지고, 시장에서의 자유 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형성되었다. 이후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권 보장, ㉠계약 자유의 원칙, 자유시장제도를 근간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본주의는 사유 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이윤을 추구하며,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공급되고 소비되는 경제 체제이다. 시장은 자유 경쟁의 원칙에 의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유롭게 거래를 형성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경쟁한다. 예를 들어, 수요자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공급자 간에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며, 마찬가지로 수요자 간에도 경쟁이 이루어진다. 또한 시장은 가격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 활동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와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강조한다. 개인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고, 국가가 개인의 경제 활동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에 맡겨 두면,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며 저절로 발전한다는 이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이와 같은 기본 사상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변모해 가고 있다. 특히 시장 중심의 거래에서 해당 거래의 내용과 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시장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질문에 그 한계를 갖게 되었다. 아무리 개인의 생명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무분별하게 개인의 심장 등 장기를 매매할 수 없고, 대출과 교환으로 개인의 신체를 포기한다거나 지배의 객체로 삼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 헌법의 근본 정신에도 어긋난다. 앞으로 인간 존엄 또는 보편적 윤리 도덕의 논쟁은 여러 분야에서 등장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나)

“아무 집 처자라도 인물 있고 행실 있고 부모에게 효성 있고 심오 세 되는 처자 백미 삼백 석 줄 거시오. 상환할 이 뉘 없겠소?”

심 낭자 이 말 듣고 급히 나와 묻는 말이,

“저기 가는 저 양반은 처자를 사서 무엇에 쓰려 하오. 나 같은 아이라도 사시려면 사시옵서.”

저 사람 대답하되,

“다름 아니오라 물화를 많이 싣고 남경으로 들어갈 제 수로만리 먼먼 길에 험한 곳도 허다하고 흉한 곳도

많은 중에 인당수라 하는 곳은 험하기가 제일이요, 파선을 많이 하여 사람이 허다히 죽었기로 통내하기 어렵 더니, 근래엔 새 법이 나서 그곳을 지날 적에 행실 있고 예쁜 처자 제수로 놓고 가면 뱃길이 무사하고 누십만 금 퇴를 내어 잡탈 없이 왕래하는 고로 ㉠남자 같이 고운 처자 중값 주고 사려 하오.”

심 낭자 그 말 듣고 천지가 무너지고 정신이 아득하나 출천한 저 효성이 죽기를 아꼈소냐. 강인하여 대답하 되,

“그대의 하는 말이 정녕히 그럴진댄 ㉡나 같은 몸이라도 사려거든 사 가시오.”

저 사공 그 말 듣고 대희하여 하는 말이,

“공양미 삼백 석을 망전에 수운하여 보은사로 올릴 것이오니 십구일 행선이라. 돈 열 냥 드리오니 소찬 소 의 정히 하고 십구일 새는 날을 고대하고 계시다가 소식을 기다려 위월 없게 하옵소서.”

심 낭자 탕탕히 허락하고 부친 전에 들어와서 은근히 여쭙오되, …….

- 심청전 중에서 -

■ 출제 의도

- 제시문 (가)는 심청전의 내용 중 상인과 심청 간의 거래(사람을 사고 파는 일)의 과정에 주고 받은 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계약의 자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고, 그 거래의 내용에 아무런 제한을 둘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제기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핵심이기도 한 계약의 자유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현대 계약관계에서도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이념 아래 허용된다.

■ 문항 해설

- 제시문 (가)에 따르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갖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주의의 출발 이론은 사적 소유권의 보장, 계약 자유의 원칙, 자유 시장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가)의 내용은 자본주의의 기초 이론인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국가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에 맡기면 된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이론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상당 부분 수정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은 여러 부분에서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후반부에 보여주듯이 계약의 자유 또한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닌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와 윤리 도덕의 관점에서 거래 대상의 한계를 제시해 주고 있다.

- 제시문 (나)에 따르면, 고전 소설이 주는 감정적 차원의 미담을 넘어서 상인과 심 낭자가 주고 받는 대화의 내용을 인간 존엄 또는 보편적 윤리 도덕의 관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계약 당사자인 상인과 심 낭자가 아무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처분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더라도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계약자유 원칙에 근거하여 거래 내용 또한 어떠한 제한 없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가는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을 지정하거나 그것을 때로는 범죄로 규정하여 시장의 자율성에 개입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 간의 계약이 자율적 의사결정에 토대를 두고 있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계약 내용은 허용될 수 없다.

■ 채점 기준

* 기본점수 50점, 아래 ①~⑤의 각 항목당 최대 15점씩, 합계 100점.

- ① 제시문 (나)에 표기된 ㉠과 ㉡의 의사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하여 적절하게 표현하여 계약관계가 설정되고 있는 점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최대 15점.
- Key words: 자율, 계약, 합의
- ② 제시문 (나)의 ㉠과 ㉡ 그리고 제시문 (가)의 ㉢의 원칙과 그 한계의 의미를 적절하게 연결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면 최대 15점.
- Key words: 자유 또는 자율적 의사, 자본주의
- ③ 제시문 (나)의 ㉠과 ㉡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자율적 처분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 현대 자본주의에서 상당 부분 제약될 수 있다(계약자유도의 한계)는 점을 평가하고 있으면 최대 15점.
- Key words: 신체 또는 생명, 인간존엄, 계약 자유의 원칙이 갖는 한계
- ④ 비문이 없고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경우 최대 5점
- ⑤ 총 글자 수 600-700자는 5점 감점
- ⑥ 총 글자 수 500-600자는 10점 감점
- ⑦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최대 20점 이하 점수 부여
- ⑧ 총 글자 수 800자 초과는 5점 감점

■ 예시 답안

㉠과 ㉡은 상인과 심 남자 간에 젊은 여자를 사고 파는 계약과정을 보여주는 의사표현이다. 상인은 자신의 행길 안전을 바라고, 심 남자는 아버지를 위한 효심의 발로로 계약에 합의한다. 둘 간에 다른 어떠한 장애도 없이 대화 속에 서로의 목표를 완벽하게 일치시킨다. 이 합의는 아직 미성년자인 심 남자가 자신의 신체 내지 생명을 그 계약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가)의 자본주의 이념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자본주의는 (가)의 설명처럼 개인이 자율적 의사에 따라 국가의 간섭 없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렇지만 그러한 자유 또한 보편적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윤리를 통한 한계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과 ㉡에 따른 계약은 인간존엄의 이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평가해 볼 수 있다. 자본주의의 이념에서 나오는 계약 자유의 원칙은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기초한다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맡긴다. 하지만 그 계약에 인간의 자율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어떤 것도 계약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나)의 경우와 같은 계약 체결에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국가는 법이라는 강제 수단을 통하여 인간의 신체나 생명을 계약의 대상으로 삼아 처분할 수 없도록 한다. 국가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일부 수정 또는 제한하여 시장질서를 조정해 나가기도 한다. 따라서 (나)에 체결된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한계를 갖는 영역으로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당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798자)